

“오월 정신”... 영남 이재민에 전달된 ‘광주 주먹밥’

서구-양동장금이 500인분 나눠 오월정신으로 영호남 연대 위해 “빠른 산불피해 극복을” 입 모아 지역소재 업체 구호물품 기부도 “전국적 도움 절실...위로됐으면”



양동전통시장 상인들로 구성된 '양동 장금이'와 김이강 광주 서구청장이 31일 오전 광주 서구청 주차장에서 '광주 주먹밥'을 만들고 있다.

“어려움을함께 나누자는 광주시민들의 마음이 전해져 영남 지역 이재민들이 위안을 얻고, 다시 힘냈으면 좋겠어요.”

31일 오전 광주 서구청 일대는 이른 시간부터 빨간 두건과 앞치마를 두른 봉사자들의 분주한 움직임으로 활기를 띠었다. 아직 쌀쌀한 3월의 아침 공기 속에서도 봉사자들은 김이 나는 갖 지는 밥과 준비한 재료를 정성스럽게 버무려 주먹밥을 만들기 시작했다. 이마에는 금세 붉은 땀방울이 맺혔고, 구호 차량의 출발 시간이 다가오면서 이들의 손놀림은 한층 더 바빠졌다.

사상 최악의 화마로 삶의 터전을 잃은 영남 지역 이재민들을 돕기 위해 광주 서구 주민들이 온정의 손길을 내밀었다. 주민들은 ‘오월 정신’을 담아 정성껏 만든 주먹밥과 십시일반 마련한 구호물품을 나누며, 국가적 재난 극복을 위한 연대와 희망의 불씨를 지켰다.

이날 양동전통시장 상인들로 구성된 ‘양동 장금이’와 김이강 서구청장을 비롯한 서구 공직자들은 최근 잇따른 산불로 막대한 피해를 입은 경북 영덕에 보낼 주

먹밥 500인분을 준비했다.

이는 5·18민주화운동 당시 시장 상인과 양동 주민들이 시민군에게 주먹밥을 나누며 서로의 고통을 나누고 대동정신을 실현했던 것과 같이, 지역을 넘어서 영호남이 연대해 함께 어려움을 이겨내자는 취지다.

상인들은 수십년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 능숙한 손놀림으로 주먹밥을 빠르게 만들어갔고, 탁자에는 순식간에 주먹밥이 가득히 쌓였다. 직원들도 주먹밥을 포장

용기에 담아 신속하게 구호 차량으로 옮기는 등 각자 맡은 역할에 집중하느라 여념이 없었다.

당초 계획했던 500인분은 1시간도 채 되지 않는 시간 안에 포장까지 모두 마무리됐다. 재료를 넉넉히 준비한 덕에 남은 주먹밥은 함께 고생한 직원들에게 나눠졌고, 이들은 서로를 격려하며 허기를 달렸다.

상인들과 직원들은 ‘광주 주먹밥’을 실은 구호 차량이 멀리 떠나는 모습을 지켜

보며 연신 손을 흔들었다. 상인들은 영남 지역 이재민들이 하루 빨리 일상을 되찾았으면 좋겠다는 염원을 내비치기도 했다.

전현민(44)씨는 “대형 재난이 영남 지역민들의 가족과 집을 앗아가는 모습을 보며 속상하고 안타까웠다”며 “‘오월 정신’이 담긴 주먹밥이 이재민들이 다시 일어나, 어려움을 극복하는 데 조금이나마 힘이 됐으면 하는 마음”이라고 강조했다.

정미경(59)씨도 “산불 피해 지역 이웃들의 삶의 터전이 무너져 내리는 모습에

너무도 가슴 아팠다”며 “중학교 2학년이던 5·18민주화운동 당시에도 주먹밥을 나누며 서로를 위로했던 기억이 난다. 힘든 순간일수록 따뜻한 밥 한 끼가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알기에, 작은 정성을 보태고 싶었다”고 밝혔다.

이날 구호 차량에는 주먹밥과 함께 생수와 컵라면, 생필품 등 다양한 구호 물품도 가득 실렸다. 몰마루·와이마트·신세계이마트·다르다김밥 등 서구 소재 업체들은 자발적으로 구호 물품을 기부하며 온정의 손길을 더했다.

뿐만 아니라 서구는 이재민들의 생활편의를 돕기 위해 세탁차량을 지원하는 동시에 전 직원 대상으로 ‘산불 피해 지역 돕기 성금’을 모으고 있다. 또한, 고액 기부자 클럽인 서구아너스에서도 특별 성금을 모아 전달할 예정이다.

김이강 서구청장은 “대규모 산불로 많은 분들이 희생되고, 수많은 이재민이 고통을 겪고 있는 현 시점에서 전국적 도움이 이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며 “서구민들의 따뜻한 나눔과 연대가 이재민들에게 작은 위로가 되고, 다시 일어설 힘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 지역 5개 자치구는 각자 영남 지역 산불 피해 복구를 돕기 위해 구호 성금을 모금하거나 구호 물품을 전달하는 등 연대의 뜻을 이어가고 있다. 이날 광주 구청장협의회도 대한적십자사 광주전남지사에 1000만원의 성금을 전달했다.

글·사진·윤준명 기자 junmyung.yoon@jnilbo.com

한일역사정의평화행동 “일본, ‘역사 왜곡’ 교과서 철회해야”

‘식민 지배 합리화’ 강력한 비판 “日 야욕 저지 위한 행동 나서야”

역사 관련 시민사회단체가 일본 정부 차원에서 왜곡된 역사가 기술된 교과서를 검정 통과 시킨 것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한일역사정의평화행동은 3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주한일본대사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일본의 후안무치 고교 역사 교과서 왜곡을 규탄한다”고 질타했다.

단체는 “이번 검정 교과서에는 한일병합은 국제법적으로 합법이며, 독도는 일본의 고유영토임을 강조하고 있다”며 “식민지 시기 강제 동원을 부정하고, 일본군 ‘위안부’에 대해서도 강제성을 희석하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2차 세계대전의 전범국으로서 일본은 자신의 역사를 왜곡하지 말아야 한다. 사도 광산에 강제 동원된 ‘조선노동자’를 표기하지 않은 것도 마찬가지이다”며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없다. 헛

된 야망을 접고 한국을 비롯한 모든 국가에 사과와 반성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의 역사는 3.1운동, 6.10만세운동 등 전 민족적으로 일제에 항거해 왔다. 시민사회, 국회, 정부 모두 일본의 야욕을 꺾기 위한 행동에 나서야 한다”며 “일본은 역사왜곡 교과서를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한편 지난 25일 일본 문부과학성은 독도, 강제징용, 일본군 위안부 등 역사적



한일역사정의평화행동이 3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주한일본대사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일본의 후안무치 역사 교과서 왜곡’을 규탄하고 있다. 한일역사정의평화행동 제공

그린 알로에

그린 프리미엄 베라골드 400

알로에겔

그린알로에 건강기능식품은 단 1%도 중국산 원료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알로에 베라겔 함유로 400%

현대인들의 면역력 증진 뿐 아니라 장 건강, 피부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알로에 본고장인 미국산

- ✓ 유기농 알로에베라겔 함유 400%
- ✓ 면역다당체 하루 섭취량 300mg

그린 프리미엄 베라골드 400 알로에겔

☎ 소비자상담실 080-234-6588

■ 제조사 : 코스맥스엔비티(주)
■ 유통전문판매원 : (주)그린알로에

※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에서 광고심의 받은 광고물입니다.